

내고장 일꾼



서대석 서구청장은 10일 오전 10시 서구의 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68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10일 오후 2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전략과제 발굴회의'에 참석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0일 오전 10시 20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8 복지행정상 시상식' 행사에 참석한다.

상황별 제설대책 추진 장비·자재 등 점검 완료

동구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예방적 방제체제 확립과 상황별 제설대책을 수립, 본격 대비태세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너릿재·무등산장 진입로·남광주교가도로 등 제설 우선 노선을 정해 중점 관리하는 등 강설 시 차량통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강설 시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살포기·제설기·굴삭기 등 총 32대 제설장비와 연화칼슘 160t·소금 427t·모래주머니 5,000포 등 최근 3년 평균사용량 대비 117%의 제설자재를 확보했다. 구는 운행 10년 이상 경과된 살포기 3대·덤프트럭 1대 등 노후 제설장비를 교체하고, 제설 장비·자재 점검을 완료했다.

또, 상습결빙 지역인 무등로 등 10개 노선과 이면도로 경사지 30개소 등 총 40개소 적사함에 모래 800포와 그 외 400개소에 모래주머니 4,000포를 배치했다. 이면도로 및 보도·육교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연화칼슘 13t과 모래주머니 1,300포대도 각 동에 배분했다.

구 관계자는 "폭설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도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겨울철 취약계층 찾아 '맞춤서비스' 강화

내년 2월까지 100여명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 연탄·김장김치 등 민간복지 연계 협조체계 구축

광주 동구는 최근 도움이 필요한 복지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약화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습한파 예고까지 겹쳐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발굴지원에 적극 대응키 위해 마련됐다.

심으로 동주민센터와 주민복지공동체 등 각 동별 100여명 규모의 '위기가구 발굴단'을 구성하고, 고시촌거주자 등 관내 비정형거주자·생활 곤란자·에너지 빈곤층·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인(행복e음)과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이관된 세대·복지포털(복지로)에 지원신청한 세대에 대해 신속히 상담을 실시하고, 민간복지자

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4060 위기독거남 지원 프로젝트' 등 구 자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도 사회로부터 고립된 중장년층 독거남 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선 ▲긴급지원제도를 활용한 공적지원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정해 지속 관리 ▲현물긴급복지프로그램 '행복상자' 제공 ▲방문상담 및 민간서비스 연계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우선 지원에 나선다. 또 대상가구가 필요로 하는 연탄·난방유·백미·이불·김장김치 등 맞춤형 물품을 민간자원과 연계해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올 겨울을 기습한파가 예고된 만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자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사랑 담은 김장 나눔행사 광주 동구청 직원들이 최근 주민들이 따뜻하고 든든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동구청 제공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2계단 상승

광주 자치구 중 유일...생활실천 서약 등 강력대책 성과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동구청이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9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구는 종합청렴도 부문 8.23점(10점 만점)으로 3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5등급을 받았던 구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2계단 상승했으며

전국 69개 구단위 자치단체 중에서도 2계단 상승은 6개구에 불과하다. 앞서, 구는 임택 구청장이 민선7기 구정을 이끌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청렴대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9월엔 외부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생활실천 서약 ▲청

렴 클린 폴 실시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 문자메시지 전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했다. 그 결과 외부기관에 의뢰한 대인분야 자체청렴도 측정서 설문대상자 92%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얻어냈다.

특히, 법무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예방적 감찰활동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제 시행 등 법과 원칙에 의거한 윤리행정이 공직비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고광민 기자

노인종합복지회관, 담장 허물고 녹지공간 조성

소나무 등 초화류 식재

동구는 노인종합복지회관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9일 구에 따르면 노인복지회관 주변에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 사업비 6,000만원을 투

입해 최근 준공을 마쳤다. 노인복지회관 주변 쉼터공간은 37m에 이르는 높은 담장 대신 컨트리 매너블룩으로 앉은 벽 화단을 조성하고, 소나무·홍가시를 비롯한 각종 초화류 1,100그루를 심었다. 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등자 6개를 추가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민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제고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녹지 확충과 지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금연환경 조성 '최우수 기관'

인쇄거리 종사자 '쾌적한 일터' 프로그램 호평

동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8년 금연 환경 조성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금연 환경 조성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에서 '금연관리 사각지대 직장을 쾌적한 일터로'라는 주제로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는 비흡연자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이 전국 대비 약 2배 높다는 조

사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과 협업해 ▲대상자 수요에 맞는 자원 발굴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기업주도 금연구역 지정 ▲소규모 사업대상 이동 건강서비스 지원 및 금연환경 조성 등에 힘썼다. 특히,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쇄거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절주·직업병예방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연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민의 건강지수를 높이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8년 금연 환경 조성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동구청 제공

무용·합창...실버문화 페스티벌 성료

동구는 최근 어르신 실버동아리가 참여한 가운데 '제4회 실버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취미·여가프로그램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버동아리 20개팀 어르신 400여명이 참여했다. 참

가팀은 궁중무용을 비롯해 국악·스포츠댄스·합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갖고있던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친화도시에 걸맞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hinchuk Wonrum Maemae (신축 원룸 매매) and Jeonwonju Taekji (전원주택지 전문). Includes details on property location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